



발행인: 김 영 욱 | 발행처: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TEL : 02)880-9320 | FAX : 02)882-9320 | 발행일: 2011년 9월 1일

Vol. 008 / September 2011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8호

학장 인사말

발전을 향한 변함없는 발걸음



비가 무섭도록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성기후에서 아열대성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견해가 그동안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지난 여름 비가 한창일 때엔 이미 기후가 바뀌었다는 견해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비가 많았고 또 피해가 컸으면 그 정도의 말까지 나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원상복구가 빠르게 또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9월,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캠퍼스의 나무와 관악산의 푸른빛이 조금은 열린 듯 느껴집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 때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맞아 음악대학 새 학장이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갖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태봉 전 학장님은 지난 겨울 음대 교수 두 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 음악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음악대학 교수님들이 교수회의를 열어 사의를 거두어들이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정태봉 전학장님은 우리 음악대학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물러나셨습니다.

제가 학장을 맡은 지 이제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음악대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또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잡는 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임 학장님들과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 그리고 훌륭한 졸업생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쌓아온 우리 음악대학의 아름다운 역사가 눈부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수, 졸업생, 재학생 여러분의 따뜻한 협력이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발전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 영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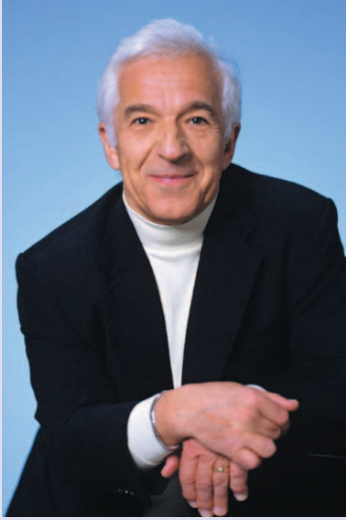
목 차

- 01 학장 인사말
- 02 Special Event – Ashkenazi & Sydney Symphony Orchestra at SNU 2011학년도 기율학기 예정 행사
- 성악과, 작곡과, 가악과, 국악과
- 03 음대주최 주요행사
- 성악과, 작곡과, 가악과, 국악과
연구소 소식 및 화요음악회
- 서양음악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화요음악회
- 05 음악대학 실내악 프로젝트 – 비엔나의 고전과 낭만 Klassik und Romantik in Wien/ 참가학생 인터뷰
- 손나래(성악과08), 고은애(가악과08, 바이올린)
- 06 악기 탐방시리즈(트롬본) / 전공자 인터뷰
- 오세리(가악과07, 트롬본)
- 07 음악대학 단신
- 학장 이취임식
-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 음대 실험실습기재재 확충
- 예술관 영상시스템 구축
- 음대도서관 분실방지 시설 및 대출 자료 확대
- 오회숙 교수 교육상 수상 및 음대에 발전기금 출연
- 음악대학 환경개선 현황
- 음악대학인사(2010년 10월 ~ 2011년 9월)
- 09 교수중정 및 등문소식
- 성악과, 작곡과, 가악과, 국악과
- 12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 프레즈 안내
- 콩쿠르 입상 소식

편집: 기획홍보실 김혜영

Special Event

Ashkenazi & Sydney Symphony Orchestra at SNU



우리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 아쉬케나지(Vladimir Ashkenazi, 1937~)와 SNU Symphony Orchestra의 만남. 11월 15일, 음악대학에서 그의 지휘로 Orchestra workshop이 열린다.

한호(韓濠) 수교 50주년을 맞아 내한하는 Sydney Symphony Orchestra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쉬

케나지는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자청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SSO수석연주자들에 의한 파트별 워크샵(오전)과 그가 지휘하는 Orchestra rehearsal(오후)을 마련하였다. 어떠한 요구도 없이 젊은 음악가들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올가을 뜻하지 않은 선물처럼 찾아온 그와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2011학년도 가을학기 예정 행사

2011. 9. 1~ (예정)

성악과

- 10월 중 ~ 11월 30일 : 'G. Verdi' 오페라 작품(친필악보, 무대그림, 의상, 공연물 등) 전시회 & Verdi Opera Gala Concert(5회 공연)
- 후원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 공동주최 :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극장

작곡과

Studio 2021

- 10월 27일 ~ 28일 : Festival Accento - 젊은 작곡가의 밤
- 10월 31일 ~ 11월 1일 : Guest Composer's Week - Wolfgang Motz
- 11월 중 : Composer's Studio - 최우정

기악과

현악, 관악 전공

- 10월 중 :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
- 11월 중 :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
- 11월 20일 : 현악과 실내악 연주
- 11월 21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
- 12월 1일 : SNU Philharmonia Orchestra 정기연주
- 12월 19일 :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피아노 전공

- 9월 2일 : Master Class - Jeno Jando
- 9월 중 : Master Class - 신수정 교수 예정
- 10월 7일 : Master Class - Shalev Ad-El
- 10월 14일 : Master Class - Gabriel Chodos
- 11월 중 : Master Class - Christopher Harding

국악과

- 11월 12일 : 제53회 정기연주
- 10, 11, 12월 중 : 관악사 상설음악회

음/대/주/최 주/요/행/사

<2010-2>
<2011-1>

♬ 성악과

<2010-2>

- 9월 9일 ~ 11일 : 예술의 전당 주최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 "La Traviata",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 9월 30일 : Master Class - Brian Zeger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디렉터)
- 10월 26일 ~ 27일 : 26회 정기오페라 - "La Traviata"

<2011-1>

- 4월 22일 : Master Class - Eugenia Anvelt(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 성악과 교수)
- 5월 16일 ~ 19일 : Master Class - Margit Fussi(비엔나 국립음대 교수) Vienna Chamber Music Festival 개최, Liederabend 음악회 공연 (기악과(피아노전공)과 공동주최)

♬ 작곡과

<2010-2>

Studio 2021

- **Guest Composer's Week : Dieter Mack**
- 9월 13일 : Lecture
- 9월 14일 : 작곡레슨
- **Festival Accento : 2010 Divertimento?**
- 9월 11일 : 실내악연주회
- 9월 17일 : 관현악연주회
- **Composer's Studio : 정종열**
- 11월 2일 : Lecture Concert

<2011-1>

- **작곡가 Baudouin de Jaer 특강**
- 3월 7일 : Lecture Concert

Studio 2021

- **Composer's Studio : 전상직**
(Studio2021 & 미래악회 공동 주최 '작곡가의 초상-전상직')
- 5월 31일 : Lecture Concert

♬ 기악과

<2010-2>

▶ 현악, 관악 전공

- 9월 4일 : Master Class - Gerge Lambert (Flute)
- 9월 8일 : Master Class - 이정화(Harp)
- 9월 29일 : Master Class - Michel Moragues(Flute)
- 10월 4일 : Master Class - Denis Sungho Janssens(Guitar)
- 10월 16일 : Master Class - Gerard Poulet (Violin)
- 10월 27일 : Master Class - Hiroaki Kanda (Flute)
- 11월 14일 : SNU 관악합주단 정기연주회
- 11월 11일 : Master Class -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Master Class (Flute, Oboe, Clarinet, Bassoon, Horn, Trumpet, Trombone, Tuba, Percussion)
- 11월 12일 : Master Class - Nick Woud (percussion)
- 11월 18일 :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
- 11월 21일 : Master Class - Paul Yancich (Timpani)
- 11월 23일 :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회
- 12월 12일 :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회

▶ 피아노 전공

- 10월 5일 : Master Class - 신수정 교수
- 10월 25일 ~ 28일 : Master Class - Piotr Paleczny
- 11월 1일 : Master Class - Russell Sherman
- 11월 12일 : Master Class - Barry Snyder

<2011-1>

▶ 현악, 관악 전공

- 3월 8일 : Ana Garzuly(Flute), Henrick Wahlgren(Oboe)

- 장소 : 서울대학교 미술관

- 1.1. **논문 발표(좌장 : 이석원,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장)**
- 존 링크(John Rink, 영국 캠브릿지대 교수) 'Chopin at the piano'
- 헤르만 고체프스키(Hermann Gottschewski, 일본 동경대 교수) 'The meaning of absolute pitches in Chopin's Works'
- 마치에이 고온브(Maciej Gołab, 폴란드 브로츠와프대 교수) 'Fryderyk Chopin's Polonaise. The riddle of its melodic figure'

1.2. 원탁 토론 1(좌장 : 김미옥, 장로회 신학대 교수)

- 존 링크, 헤르만 고체프스키, 마치에이 고온브, 손민정(대전대 교수), 정혜윤(서울대 강사)

1.3. 원탁 토론 2(좌장 : 오희숙, 서울대 교수)

- 최갑수(서울대 교수), 김미옥, 임한순(서울대 교수), 김영나(서울대 교수)

- 3월 10일 : SNU Wind Ensemble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 3월 18일 : Master Class - Lorenzo Gatto (Violin)
- 4월 13일 : John Anderson(Oboe)
- 4월 21일 : 김창국(Flute)
- 4월 26일 : Nancy Ambrose King(Oboe)
- 5월 11일 ~ 12일 : Master Class - Charles Castleman(Violin)
- 5월 17일 : Romain LELEU(Trumpet)
- 5월 21일 :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회
- 5월 22일 : Ulf Schaaff(Flute)
- 5월 24일 :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
- 5월 26일 : Master Class - Edward Aron(실내악)
- 5월 28일 : Master Class - Wen-Sinn Yang(Cello), 이미경(Violin)
- 6월 2일 : SNU Wind Ensemble 'June Concert 2011'
- 6월 6일 : Svet Stoyanov(Percussion)
- 6월 7일 : Jonathan Cohler(Clarinet)

▶ 피아노 전공

- 3월 25일 : Master Class - Amy Lin
- 4월 15일 : Master Class - Arie Vardi
- 5월 27일 : Master Class - William Grant Nabore
- 6월 2일 : Master Class - Gustavo Romero
- 6월 7일 ~ 8일 : Master Class - 신수정 교수
- 6월 11일 : Master Class - 예일대 Peter Frankl 교수

♬ 국악과

<2010-2>

- 11월 17일 : 관악사 상설 음악회
- 11월 18일 : 제52회 국악 정기 연주회
- 11월 26일 : 전통가곡연주회(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가곡' 등재 기념공연)
- 12월 1일 : 2010 창작음악발표회
- 12월 8일 : 아두 2010 송년콘서트

<2011-1>

- 2월 22일 ~ 26일 : 2011년도 동계 음악캠프(국악과)
- 5월 17일 : 봄 정기 연주회

2. 초청 특강

2.1.

- 강연 : 볼프강 슈타인벡(Wolfgang Steinbeck, 독일 쾰른대 교수)
- 주제 : Der Autor als Instanz. Selbstreflexive Strukturen in Schumanns Rheinischer Symphonie
- 통역 : 이윤정
- 일시 : 2010년 9월 13일
- 장소 : 음악대학 시청각실

2.2.

- 강연 : 켄이치 미야자키(일본 니카타대 교수)
- 주제 : 절대음고의 신화
- 진행 및 토론 : 이경면(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원)
- 일시 : 2010년 10월 1일 ~ 2일
- 장소 : 220동 415호(특강 1), 시청각실(특강 2)

2.3.

- 강연 : 존 링크(John Rink, 영국 캠브릿지대 교수)

연구소 소식 및 화요음악회

서양음악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화요음악회

<서양음악연구소>
<http://wmri.snu.ac.kr>

<2010-2>

1. 학술대회 '쇼팽 온 다'

-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10월 23일 1시 ~ 6시

- 주제 : Chopin's music in perspective : from creation to recreation
- 진행 : 정문혁(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원)
- 일시 : 2010년 10월 21일 5시
- 장소 : 음악대학 시청각실

2.4.

- 강연 : 존 링크(John Rink, 영국 캠브릿지대 교수)
- 주제 : The Analysis of musical performance : theory and practice in context
- 진행 : 송무경(연세대 교수)
- 일시 : 2010년 10월 23일 9시
- 장소 : 음악대학 예술관

2.5.

- 강연 : 허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주제 : 극음악으로서의 헨델의 오라토리오
- 진행 : 이석원
- 일시 : 2010년 12월 30일 3시
- 장소 : 음악대학 시청각실

3. 한국연구재단 등재 정기간행물 '음악이론연구' 15집 발행

<2011-1>

1. 의학연구소-서양음악연구소 공동 학회

- 일시 : 2011년 1월 28일 1시 ~ 4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중학연구동 220동 417호
- 논문 발표

이경면(서울대 강사): 《Music and Emotion》
 박정미(서울대 음대 박사 과정): 《조성체계에 의한 문법(syntax) 해석의 뇌기능 연구》
 김찬희(서울대 음대 석사 과정): 《조성-무조성 음악감상시 시간에 따른 좌뇌와 우뇌의 뇌기능 비교 연구》

- 질의 : 이석원(서울대 교수), 정천기(서울대 교수)

2. 학술대회 <뇌가 듣는 음악>

- 서양음악연구소(WMRI) -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KSMPC) 공동 학술대회
- 일시 : 2011년 4월 9일 1시 ~ 5시 30분
- 장소 : 음악대학 시청각실

I. 특별 강연 : 사람(뇌)은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강연자 : 정천기

- 강연자 : 정천기

II. 심포지엄 : MEG를 이용한 음악연구 사례

- 좌장 : 이석원
- 논문 발표 :
 1. 설재호(서울대병원 연구원) : 절대음고에서의 음색지각 연구
 2. 김찬희 : 인간의 뇌는 화음의 진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3. 박정미 : The characteristics of biomagnetic responses to musical syntax in musicians compared with nonmusicians
- 토론 : 이경면(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론전공 강사)

3. 연구소 지원 연구 업적

- 강현모(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원), 《해외음악학 박사 학위 논문 현황》, 음악이론연구 16, 2011: 139-162.
- 김성혜(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원),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음악인류학적 단상》, 음악이론연구 16, 2011: 8-28.
- 박지현(서양음악연구소 학술연구원), 《초등학생의 음악 창작 활동 과정 및 지도 방안 연구》, 아동교육 20, 2011: 5-18.

4. 음악이론연구 발행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음악이론연구》 16집 발행
- 발행일 : 2011년 6월 15일
- 총 162쪽
- 학술 논문 5편과 보고서 1편 수록

<동양음악연구소>

<2010-2>

제9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시간을 공간에 담다>

- 일시 : 2010년 9월 9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강당
- 김수미(서울대 강사) 판소리 채보와 기호를 통한 창법과 가장양상 연구
- 권도희(서울대 강사) 20세기 후반의 구음기호 방법과 활용
- 최 현(부산대 교수) 국악채보의 제 문제
- 김해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 전통음악에서의 채보와 기보, 인식과 그 한계
- 박미경(계명대 교수) 채보자의 지향점 논의

- 토론 : 신대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영운(한양대 교수), 이지영(서울대 교수), 이태원

<2011-1>

동양음악 제32집 발간

- <제9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 박미경(계명대 교수), 채보자의 지향점 논의
- 김수미, 판소리 채보와 기호를 통한 창법과 가장양상 연구
- 권도희, 구연보와 현대육보
- 최 현, 국악 채보의 제 문제
- 김해숙, 한국 전통음악에서 채보와 기보, 인식과 그 한계

<일반논문>

- Hilary V. Finchum-Sung(서울대 교수), Kugak Concerti: Changing the Contours of Korean Music Performance
- 오용록(서울대 교수), 조선 후기 당악의 변천

<기획연재>

- 이용식, 실크로드의 음악2, 타지키스탄

<오페라연구소>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연구소는 음악대학 정기 오페라 공연에 참여했으며 서울시오페라단과 연계하여 방학기간을 통해 나눔 오페라를 공연하였다. 공연한 작품으로는 '라 트라비아타', '돈 파스칼레', '토스카' 등이며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들이 주역 및 조역을 맡았다.
- 2010년 9월 10일~11일, 10월 26일~27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6회 정기오페라 공연 참여 : <라 트라비아타>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문화관 대강당
- 2011년 2월 25일~26일 : 오페라 <돈 파스칼레> 서울 열린극장 창동
- 4월 21일~24일 : 오페라 <토스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그 외 송파 구민회관, 세종M씨어터,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등에서 돈 파스칼레, 잔니 스키키, 카발레리아 루스티가나, 8회 공연

2010년 2학기 서울대인과 관악구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SNU TUESDAY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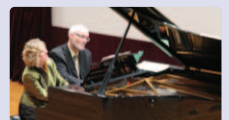
- 1회 | 쇼팽, 온 다 - 팔레스트리나 마스터클래스(공개계선)
일시: 10월 26일 오후 3시 예술관 콘서트홀(49동)
- 2회 | 기적을 연주하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국내 최초 지적장애인 청소년오케스트라)
일시: 11월 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 3회 | pleasure & passion(라온퀸텟 & D.S.브라스)
일시: 11월 16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 4회 | 가을의 빛(피아노 임지연 & 리블리허퀸텟)
일시: 11월 30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 5회 |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베이스 연광철, 피아노 최희연)
일시: 12월 7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2011년 1학기 서울대인과 관악구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SNU TUESDAY CONCERT

- 1회 | '리스트의 영감' - 황윤하 렉처 리사이틀
일시: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 2회 | 화요음악회 오디션 우승팀 - Bon Trio & Amoroso Quartet
일시: 4월 26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 3회 | '비올라 다 감바 vs 바로크 첼로' - 알테 무지크 서울
일시: 5월 3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 4회 | 소프라 호른 6중주 앙상블 연주
일시: 5월 17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 5회 | '피아노 듀엣 리사이틀' - Duo Majora
일시: 5월 24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음악대학 실내악 프로젝트 -
비엔나의 고전과 낭만
Klassik und Romantik
in Wien / 참가학생 인터뷰**
손나래(성악과 08)
고은애(기악과 08, 바이올린)



〈학생 인터뷰〉

■ 손나래(성악과 08)

1. 챔버 뮤직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여러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성악과 학생들이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 받고, 노래도 들어 주며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과와 성악과가 동등한 듀오관계가 되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각 과의 참여도가 높았던 점 또한 좋았습니다. 보통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면 성악과 마스터클래스, 피아노과 마스터클래스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지으며 자칫 한 쪽으로 기울 수 있는데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올바르게 조율하는 법을 배우고, 무대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불어 음악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2. 이번 프로젝트에서 특히 좋았던 점

특히 Liedabend(리더아벤트: 가곡의

밤)가 좋았습니다. 페스티벌 내내 마스터클래스 받았던 곡을 가지고 모두가 슈베르트를 주제로 가곡의 밤을 열었는데 일주일간 계속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슈베르트 및 그의 작품연구에 몰두해 있다가 리더아벤트로 그 성과물을 연주하니 배웠던 모든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을 바로 실제 연주에 적용해 봄으로 확실히 제 것이 되어서 실전에서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면서 즐겼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리고 Lied(리트: 독일 가곡)라는 장르의 말에서 오는 뉘앙스, 해석 등이 음악의 해석으로 바로 연결 되어 텍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었던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또한 주요한 활동을 모두 빈에서 했기 때문에 빈은 슈베르트를 이해하기 위한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뵈게 된 Margit Fussi 선생님은 빈에서 살고 계시고 빈 국립 음대 전 학장이셨어요. Fussi 선생님을 통해 독일의 독일어와는 약간 다른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독일어를 느낄 수 있어 슈베르트의 리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ussi 선생님이 리트코치를 해주셔서 친해지는 기회가 되었는데 연세가 지긋한 이웃집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고 따뜻하셔서 이 작업을 이끌어가는 내내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진 장점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리더아벤트로 공연 때 용기 내어 할 수 있었습니다. 반나절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리허설을 일일이 코치해주는 대단한 열정을 배웠고, 손수 빈에서 가져오신 모차르트 초콜릿과 쿠키를 선물로 주시는 모습에서는 사람을 정말 따스히 품어주는 참 스승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도 가지 않고 다같이 모여서 즐거운 뒷풀이이자 아쉬운 뒷풀이를 했어요. 모두가 Fussi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3. 이후의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

음대 내에 이번 챔버 뮤직 페스티벌과 같이 여러 과들이 합동으로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페스티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작업하며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페스티벌 자체를 좀 더 많이 기획해주셔서 배움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1.)

■ 고은애(기악과 08, 바이올린 전공)

1. 이번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보통 실내악 과목을 신청하면 본인이 전공한 과의 선생님들에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로 다른 과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베토벤작품의 경

우, 피아노를 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었고 그래서 피아노 전공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순서 중에서 강연 앞에 오희숙 교수님께서 그 곡의 배경 및 작곡가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강연이 비연주자들에게도 보다 쉽게 다가 가게 되는 느낌을 받았고, 청중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면서 집중도가 높아지니 연주를 할 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보다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악기연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실내악을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호흡을 하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돕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면서 부족한 점도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실내악의 매력도 한층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실내악은 독주에 비해 같이 연주하게 되니 부담감이나 열정이 덜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관점을 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파트를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해주어야 제대로 된 곡의 맛이 나고 감정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실내악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 프로젝트에 바라는 점

실내악의 묘미를 알게 해 준 이번 프로젝트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 했던 학생들 중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마 더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회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4.)

악기 탐방 시리즈(트롬본) / 전공자 인터뷰

오세리(기악과 07, 트롬본)

이번 호부터는 음대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하나씩 만나보는 '악기 탐방 시리즈'가 연재 된다. 알고 싶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악기부터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악기까지, 음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기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만나보도록 하자. 첫 번째 주자는 트롬본이다.

T R O M B O N E	
1. 트롬본의 역사	5. 트롬본의 종류
2. 각 나라의 명칭	6. 트롬본의 음질
3. 트롬본의 구조	7. 트롬본의 음역
4. 트롬본의 원리	8. 전공자 인터뷰

1. 트롬본의 역사

15C중반 원래 Sackbut(트롬본과 비슷한 중세의 관악기)로써 발전된 트롬본은 반음계 연주가 가능한 최초의 금관악기이다. 음색이 따뜻하고 잘 울려 퍼져 주로 교회예배에 사용됐다. 16C에는 르네상스 댄스 음악이 지금의 유럽지역에서 번창했다.



<sackbut>



<현대의 트롬본>

독특한 금관악기인 Sackbut는 현대 트롬본과 비교할 때 벨이 작고 슬라이드 내경(bore)이 작다. 이러한 독특한 슬라이드 구조와 음색으로 많은 작곡가들은 신성한 종교적 악기로 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ackbut는 슬라이드 내경과 벨 크기가 점차 커져 현재의 트롬본으로 발전했다.

바하는 그의 칸타타 15곡에 트롬본을 사용했

다. 그리고 바로크시대에 트롬본은 음역에 따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뉘어 만들어졌다. 19C에 가까워지면서 베토벤은 그의 5번교향곡에 트롬본 트리오를 삽입했으며 그때부터 그는 트롬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트롬본의 인기도 높아졌다.

19C의 많은 작곡가들 즉 바그너, 말러, 부르크너 그리고 브람스는 그들의 작품에 트롬본을 포함시켰고, 20C초반 즉 미국에서 재즈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트롬본은 글렌 밀러와 토미 도시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 오늘날 트롬본은 다른 앙상블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군악대, 재즈악단, 팝/락밴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독주악기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아직까지 트롬본만으로 형성된 트리오, 콰르텟 등 앙상블 연주를 접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각 나라의 명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단수	Trombone	Trombone	Posaune
복수	Tromboni	Trombones	Posaunen

3. 트롬본의 구조

관은 그 전체 길이의 약 2/3가 원통형으로 되어있고 벨에 가까워지면서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 벨의 직경은 약 7인치이다. 슬라이드 부분은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어 그 외측 벽은 1인치의 약 1/100두께로 되어 있다. 연주할 때 조율 슬라이드관의 U자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부분은 가늌쇠로서 악기의 균형을 잡게 되어 있다.

4. 트롬본의 원리

슬라이드 관에 의하여 튜브가 울리는 길이를 변화시키는 원리이다.

5. 트롬본의 종류

- 알토 트롬본(The alto trombone)
- 베이스 트롬본(The bass trombone)
- 콘트라베이스 트롬본(The Contrabass Trombone)
- 밸브 트롬본(The Valve Trombone)

6. 트롬본의 음질

트롬본의 음질은 전체의 음역을 통하여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높은 음역에서는 광택이 있는 음색을 더해주고 또 꿩똥은 듯한 힘이 느껴진다. 낮은 음역에서는 극히 부드럽고 죽은 듯한 피아니시모를 낼 수 있고 특히 3개의 트롬본으로 화음을 연주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다.

7. 트롬본의 음역

피아노의 기본 C 음에서 위로 2옥타브 아래로

1옥타브 정도이다.

8. 전공자 인터뷰 – 오세리(기악과 07)



- 트롬본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학교 시절 특별활동을 통해 접하게 되었어요. 여자중학교였는데 관악부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마칭밴드를 보고 제일 앞에서 팔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는 악기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악기가 트롬본인 것을 알게 된 거죠.(웃음) 그래서 3학년 때 시작해서 지금 전공까지 하게 되었어요.

- 트롬본과의 추억

중학교 시절, 어렸지만 본 수업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주신 과제가 아닌 친한 친구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대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연습하고 노력했는데 대상을 타서 놀랐기도 하고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 트롬본만의 매력

소리가 정말 따뜻해요. 부드러워서 합주할 때 효과를 주기도 하고 기본음으로 깔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트롬본끼리의 화음이 참 좋아요. 클라리넷, 색소폰, 트롬본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해보면 모난 소리가 아니어서 지지해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 그 밖에 트롬본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내용

트롬본은 받쳐주고 화음을 주로 맡은 악기이기도 하지만 솔로곡도 연주해요. 페르난드 다비드의 '콘체르티노' 라는 곡은 트롬본 솔로곡 중 가장 중요한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각종 기교, 음악성, 감각 등이 다 보여지는 곡이라 트롬본 연주의 정석이라고 할만한 곡이에요. 그래서 트롬본 입시곡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곡이죠. 물론 라벨의 '볼레로' 나 브람스 1번 '코랄'의 경우 트롬본이 솔로로 소화하기가 참 어려운 곡이지만 중요한 곡이에요. 트롬본은 트롬본 4중주나 금관5중주, 금관10중주로 해도 참 멋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팀을 짜서 연주해보고 싶어요.

- 앞으로의 계획

이제 독일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제가 트롬본을 연주하는 목적은 물론 저의 적성과도 잘 맞지만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여러 상황과 여건에 감사하며 가능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해드리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을 찾아 교회에서 연주할 때 그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되고 기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배워서 좋은 트롬본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2011. 8. 16.)

음악대학 단신

학장 이취임식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음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술관 영상시스템 구축

음대도서관 분실방지기 설치 및 대출자료 확대

오희숙 교수 교육상 수상 및 음대에 발전기금 출연

음악대학 환경개선 현황

음악대학 인사(2010년 10월 ~ 2011년 9월)

▶ 학장 이취임식



지난 2007년 9월부터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며 음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온 정태봉 교수가 몇 음대 교수들이 교내·외적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3월 14일자로 사퇴하였다. 음대 교수들은 교수회의를 통해 당초 8월까지 예정된 정상적인 임기까지 남아줄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정태봉 교수는 이 시점에서 음대에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며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2011년도 3월자로 발령된 새로운 음대 학장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교수이다.

▶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

기악과 최은식 교수의 제4회 “Summer Viola Workshop”이 2011년 7월 18일~29일, 11일간 서양음악연구소(소장 작곡과 이석원 교수) 주최로 개최되었다. 총 16명의 수강생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5동 현악합주실과 예술관 실내악실에서 3~4회 공개 레슨을 받았으며 29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우수학생연주회에서는 8명의 수강생들이 각자 준비한 레퍼토리를 연주하여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다. 마

지막 프로그램인 수료식과 ‘최은식과의 대화’로 워크숍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2010년 10월 1일 실기지도실 및 연습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음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연습실과 실기지도실을 사용할 때마다 종이에 적어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대신에 온라인상으로 미리 선택 후 수위실에서 키를 받아 가면 된다. 문의 (880-7906)

▶ 음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음악대학에서는 2010학년도에 피아노를 새로이 구입하여 기악과 피아노전공의 모든 교수와 명예교수 전원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기악과 팀파니 외 24종의 악기(2억 8천만원 상당) 등 오케스트라 연주에 필요한 악기 및 국악과 산조가야금 외 2종을 신규 구입하여 총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 예술관 영상시스템 구축

음악대학에서는 49동 예술관 콘서트홀에 공연 영상시스템을 동계 방학 중에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연장면을 대기실 및 콘서트홀 로비의 화면에서도 볼 수 있

고, 녹화된 자료를 DVD로 제작하여 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음대도서관 분실방지기 설치 및 대출자료 확대

음악대학도서관에 분실방지기를 설치하였다. 도서관 내의 모든 자료는 대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할 시 경보기가 작동된다. 음악 감상 구역은 기존 사무실에서 열람실 안으로 확장해 악보를 열람하면서 DVD, CD, Video 등 모든 자료를 감상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였다. 기존 자료제작실에서 대출하던 DVD, Video 등의 자료는 음대도서관으로 이전하였다. DVD, CD, Video 등의 모든 자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내대출만 가능하며, 열람실 내에서 감상이 가능하고, 음대도서관 내의 사무실에서 대출반납하면 된다. 학생 대출가능 자료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단행본을 포함한 악보, 논문 등의 모든 자료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 자료들의 대출기한은 3일이며 잡지류, 사전류, 전집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불가 자료이다.

▶ 오희숙 교수 교육상 수상 및 음대에 발전기금 출연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성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 5인을 선정하여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여하는 2010학년도 ‘서울대 교육상’ 수상자로 음악대학 작곡과 오희숙 교수가 선정되었다. ‘음악학’을 통해 음악이라는 예술을 중심으로 철학적 사고를 전개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오희숙 교수의 ‘음악 속의 철학’은 지난 학기 강의 평가에서 대형 강의 중 최고점을 받았다. 오희숙 교수는 교육상 상금 중 천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다.

음악대학 환경개선 현황

1. 국악과 - 의상보관실 신설(54-214호)



2. 도서관 - 자료제작실에 있던 DVD감상실을 도서관으로 이동, 기존 기계실공간을 도서관 창고로 전환, 도서열람실 분실방지 설치



3. 성악과 오페라용 도구보관실 설치(구, DVD 감상실)

4. 천정형 냉난방기 개인연습실 설치 - 서울대학교 에너지 절약사업(에코사업)



5. 화장실 - 54동 1,2,3층 기존화장실 리모델링 및 장애인화장실 신축



음악대학 인사 (2010년 10월 ~ 2011년 9월)

• 교수

- 정년 퇴직

작곡과	장정익 교수 (2011. 2. 28.)
-----	-----------------------
- 보직이동

부학장	작곡과 전상직 교수 (2011. 9. 1.)
성악과 학과장	성악과 서혜연 교수 (2011. 2. 21.)
작곡과 학과장	작곡과 이돈응 교수 (2011. 9. 1.)
기악과 학과장 겸 피아노 전공주임	기악과 최희연 교수 (2011. 9. 1.)
기악과 현악전공주임	기악과 최은식 교수 (2011. 9. 1.)
국악과 학과장	국악과 정대석 교수 (2011. 3. 28.)
대학원 음악과 음악과장	기악과 장형준 교수 (2010. 9. 1.)
기획홍보실 실장	작곡과 오희숙 교수 (2011. 8. 1.)
서양음악연구소 소장	작곡과 이석원 교수 (2010. 9. 1.)
동양음악연구소 소장	국악과 황준연 교수 (2011. 3. 28.)
도서실 실장	작곡과 이돈응 교수 (2010. 11. 1.)

• 직원

- 정년 퇴직

예술관	김이영 주무관 (2010. 12. 31.)
-----	-------------------------
- 퇴직

성악과	이창원 조교 (2011. 2. 28.)
작곡과	정영빈 조교 (2011. 3. 1.)
작곡과	이가영 조교 (2011. 7. 31.)
작곡과	정현규 조교 (2011. 8. 16.)
기악과	손정현 조교 (2011. 2. 28.)
기악과	서성현 조교 (2011. 2. 28.)
국악과	이종철 조교 (2011. 8. 29.)
- 전입

행정실	성연희 주무관 (2010. 12. 4.)
학과통합사무실	윤연호 주무관 (2011. 7. 25.)
- 신규임용

성악과	명성민 조교 (2011. 3. 1.)
작곡과	신상호 조교 (2010. 9. 1.)
작곡과	이진경 조교 (2010. 9. 1.)
작곡과	유영지 조교 (2011. 8. 1.)
작곡과	김승연 조교 (2011. 9. 1.)
기악과	이치훈 조교 (2011. 3. 1.)
기악과	김성현 조교 (2011. 3. 1.)
국악과	이승철 조교 (2011. 9. 20.)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성악과

윤현주 교수, '슈만 가곡 음악회' 연주

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윤현주 교수 제자들의 슈만 가곡 음악회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모차르트 홀에서 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25일에는 한국 합창계를 대표하는 부천필코러스의 신년음악회가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윤현주 교수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1부는 독일가곡과 사랑의 테마합창곡, 2부는 한국가곡과 열정적인 오페라 합창곡이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에는 이화여고 개교 125주년 총동창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쁨과 나눔 음악회'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윤현주 교수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박미혜 교수, 'G20 기념 음악회' 출연

박미혜 교수는 지난 2010년 8월 15일 광화문 복원 경축 'KBS 특집열린음악회'에 출연하였고, 10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축하음악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2011 두산 신년음악회'에 출연하였다. 6월 1일에는 제 21회 호암상 시상식의 축하음악회에 출연하였고, 7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AFP 초청 오페라갈라 콘서트에 출연하였다.

박세원 교수, 서울시 오페라단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등 예술총감독 역임 및 신춘 가곡의 향연 출연

박세원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9일 열린 예술의 전당 대학오페라 페스티벌 공연 중 서울대학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10월 14일~17일에 공연된 서울시 오페라단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그리고 12월 1일~4일에 공연된 서울시 오페라단 오페라 '연서' 등의 오페라 공연에서 예술총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7회 신춘 가곡의 향연에 출연하였고 6월 19, 21일에는 경기 문화의 전당에서 중앙오페라단 주최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남자 주인공 푸릿투 역할을 맡아 출연하였다. 지난 7월 6일~10일에는 서울시 오페라단의 특별공연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예술 총감독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다.

서혜연 교수, 이탈리아 베로나시의 초청공연 '한국의 향' 참여

서혜연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이탈리아 베로나시와 전라도 남원시의 문화교류를 위한 정례회의와 공연 '한국의 향'에 베로나시의 초청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0월 26일~30일에는 이탈리아 파도바시의 초청으로 "IRIS ADAMI CORRADETTI" 국제 성악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다. 12월 23일에는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의 제25회 정기연주인 '2010년 송년음악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소프라노 독창자로 협연하였다. 올해 6월 10일에는 서울대학교 미주 총 동

창회 주최로 L.A. Walt Disney Hall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한 음악회'에 초청되어 독창자로 협연하였다.

강병운 교수, 국제성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

강병운 교수는 지난 3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마리아 칼라스 국제성악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었다.

박현재 교수, '안드레아 세니에' 주인공으로 출연 및 기독교문화대상 수상

박현재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오페라단 정기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였고 12월 2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오페라 '월이엄마'에서는 주인공인 응태역으로 출연하였다. 올해 2월 제24회 기독교문화대상에서는 음악부문대상을 수상하였고 4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1 교향악축제'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리스트의 '파우스트'를 협연하였다. 지난 7월 8일~10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는 남자 주인공인 타미노역 맡아 출연하였다.

연광철 교수, 빈 슈타츠오페 극장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출연 및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 초청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공연

연광철 교수는 지난 10월 17, 20, 23일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라인의 황금'에서 '파졸트'역으로 출연하였다. 그리고 11월 3일, 6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빈 슈타츠오페 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는 자라스트로역으로 출연하였으며 12월 30일과 31일 베를린 루드비히 반 베토벤 콘체르트하우스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베이스 독창자로 협연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의 초청으로 열린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서 라이몬도 역을 맡아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으며 5월 26일과 28일에는 호암아트홀에서 '베이스연광철 리사이틀' 무대를 선보였다.

작곡과

임현정 교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슈만 & 브람스 페스티벌 심포닉 시리즈' 지휘

임현정 교수는 지난 10월 1일과 11월 26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슈만 & 브람스 페스티벌 심포닉 시리즈'에서 각각 '위대한 낭만'과 '찬란한 어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11월 21일에는 동아음악콩쿠르 50회 기념 음악회에서 도니제티와 베르디의 오페라곡과 드보르작의 교향곡을 지휘하였으며, 12월 31일에는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야음악회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등을 지휘하였다. 올해 1월 18일에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Maestro+Virtuoso I'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4번과 바이올린 협주곡을 지휘하였고 3월 10일에는 예술의전당이 기획한 'The Great 3B(Beethoven, Brahms, Bach) Series'의 올해 시리즈인 '브람스 2011'의 첫 공연에서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을 지휘하였다.

장정의 교수, 정년 퇴임 기념 음악회 '사제동행'에서 작품 발표

장정의 교수의 정년 퇴임 기념 음악회 '사제동행'이 지난 11월 3일 서울대학교 예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장정의 교수의 '무반주 합창을 위한 미사곡' 중 'Kyrie'와 'Agnus Dei'가 연주되었고 그의 제자들

의 작품도 함께 연주되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음대 교수와 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정의 교수의 고별 강연이 있었다.

이석원 교수, APSCOM에서 기조연설

한국음악학회 회장인 이석원 교수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회장인 이내선 교수(경북대 음대)는 지난 12월 10일 경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조성음악을 분석하는 다양한 시각'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올해 7월 10일~14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APSCOM(아시아태평양 음악지각 인지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정태봉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합주 정기연주회'에서 위촉 작품 초연

정태봉 교수는 지난 10월 5일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린 '우리노래페스티벌' 여섯 번째 모임에 참여하였고 10월 28일 서울패션아트홀에서는 '소프라노, 플루트, 오보에, 첼로, 타악기를 위한 두 개의 하늘'을 연주하였다. 11월 14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합주 정기연주회'에서 위촉 작품 '관악합주를 위한 경복궁(景福宮)'을 초연하였고 올해 7월 29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박성연 소프라노 독창회에서 가곡 '낙화'와 '가을 노트'를 연주하였다.

민은기 교수, '음악기보법의 역사: 소리가 기호로' 발간

민은기 교수는 '음악기보법의 역사: 소리가 기호로' (장이브 보쇠르 저, 이앤비퍼러스)를 발간하였다. 기존에 출판된 관련 책들의 접근과는 다르게 서구 예술 음악에서 사용되는 기보법의 음악적 측면을 설명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전 세계에 다양한 음악 기보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드러냈다. 곧 기보법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인간이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음악의 변화를 제시하고 설명한 이 책은 악보가 어떻게 음악을 보존, 전파하며 시각화하고 분석하게 하는 틀로 기능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돈웅 교수, 사운드설치 작품 전시회 '소리를 보다, 음악을 만지다' 개최

이돈웅 교수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소리를 보다, 음악을 만지다'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이돈웅 교수의 지금까지의 사운드설치 작품을 집약시킨 형태로, 전체적으로 소리의 원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됨과 동시에 딱딱한 과학보다는 예술적 감성을 통해 이해하도록 기획되어 관객들의 커다란 흥미를 끌었다. 한편 이돈웅 교수는 2011년부터 '음악은 인간의 전유물인가'라는 주제로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함께 음악 체험 실험을 해 오고 있다.

김덕기 교수, 대전예술의전당 & 고양문화재단 공동제작 오페라 '라보엠' 지휘

김덕기 교수는 지난 10월 21일~23일, 29일~31일 대전 예술의전당에서 대전예술의전당이 고양문화재단과 공동 제작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KBS홀에서 열린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을 지휘하였다.

이신우 교수, '2010 세계대백제전'에서 위촉 작품 초연

이신우 교수는 지난 10월 9일 공주 고마나루 예술마당에서 열린 '2010 세계대백제전'에서 나태주 공주문화원장의 시 '대백제간'을 기조로 작곡한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라, 독창자를 위한 교향시 백제를 충남교향악단의 연주로 초연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Concerto for Clarinet & Orchestra'로 제29회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3월 23일에는 체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Woodwindquintet No.3'을 연주하였으며 4월 21일에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준결선 위촉작품인 'Alleluia for piano'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일리노이 대학 음악회에서 작품 'The sounds of many waters for percussion ensemble'을 연주하였고 7월 28일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파블로 카잘스 페스티벌(Festival Pablo Casals)'에서 앙상블 오페라의 연주로 위촉 작품 '클라리넷 5중주'를 초연, 7월 29일에는 'Saint-Lizier en Couserans'에서 'Lament for clarinet and strings'를 연주하였다.

전상직 교수, 제29회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 수상
전상직 교수는 지난 10월 5일에 열린 TACM 현대음악 시리즈 XII 한·중·일 교류음악회 '동방의 소리 2010 피아노포르테'에서 'Magnificat for Piano solo'를 연주하였고, 12월 10일에는 KT체임버홀에서 열린 '소리를 넘나들다 3'에서 피리협주곡 'Linie - IV'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같은달에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위촉 작품인 'Beyond Description for Strings'로 제29회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올해 5월 31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Studio2021과 미래악회가 공동주최한 '작곡가의 초상-전상직'에서 음악학 박사 서정연의 강의와 SNU New Music Ensemble의 연주로 진행된 렉처 콘서트를 가졌으며, 8월 7일에는 서울 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작품 'cosa mentale for clarinet ensemble'을 초연하였다.

오희숙 교수, 독일 독일 훔볼트대학에서 초청 강연
오희숙 교수는 올해 1월에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음악적 인용의 미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3월과 5월에는 한국서양음악학회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우정 교수, 서울시 대표 창작오페라 '연서' 작곡 및 공연
최우정 교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0주년을 기념하여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TIMF앙상블과 공동제작하고 대본, 작곡, 공동연출을 맡은 음악극 'Francisca'를 지난 10월 27일~28일에 공연하였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최우정 교수가 작곡한 서울시 대표 창작오페라 '연서'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였고, 2011년 3월 15일에는 호암아트홀에서 그의 피아노 독주곡 '프렐류드'와 극음악들을 한데 엮은 독특한 형식의 작품발표회 '프렐류드-최우정의 무대음악'을 열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연출가 서재형과 함께 작업한 음악극 'The Chorus:오이디푸스'를 공연하였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Profectioinitiative Freiburg'과 함께 작품 초연
Roland Breitenfeld 교수는 지난 12월 15일에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음악대학에서 열린 '5 years of devotioModerna'에서 '클라리넷과 타악기,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Tempest'를 초연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19일에는 류미재 갤러리 하우스에서 열린 '전통과 현대 - 슈만, 가곡 그리고 전자음향'에서 작품 '전자음향, 가야금, 대금'을 위한 Einblick II'를 초연하였고, 3월 28일에는 통영국제음악제에서 하이너 괴벨스 작품의 사운드 디자이너로 참여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열린 'Brandeis Electro-Acoustic Music

Series'에서 작품 'HM98 for violin solo, 8-channel tape and live-electronics'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올해 7월 19일에는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린 이돈웅 교수와 함께 만든 전자 및 현대음악 앙상블 'Profectioinitiative Freiburg'의 연주회에서 '가야금과 라이브 일렉트로닉을 위한 Jasmintee'를 초연하였다.

기 악 과

기악과 백청심 교수, '故조현진 메모리얼 리사이틀'
지난 2010년 10월 21일 청담문화공간에서 백청심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꾸미는 '백청심과 SNU CELLI Ensemble' 음악회가 열렸다. 그리고 10월 31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첼리스트 故조현진을 추모하는 '백청심의 故 조현진 메모리얼 리사이틀이 열렸다.

문익주 교수, '제7회 듀오 스페셜 콘서트' 협연
지난 11월 4일 한국 피아노 듀오 협회가 주최한 제7회 듀오 스페셜 콘서트에서 문익주 교수는 연세대 김영호 교수와 함께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하였다. 이날 연주는 'Back to the Romantic'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 유명 교수들의 연주로 주옥같은 낭만시대 피아노 듀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영률 교수, '서울대학교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지휘
김영률 교수는 지난 2010년 11월 1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관악합주 정기연주회'를 지휘하였다. 이날 연주는 바흐의 곡을 시작으로 벵스타인의 곡까지 폭넓은 레파토리와 함께 협연자로는 이스트만세대 피아노과 교수인 Barry Snyder가 참여하였다. 특히 이날은 서울대 음대 정태봉 교수의 위촉작 '관악합주를 위한 경복궁'이 초연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23일 호암아트홀에서는 앙상블페스티벌 <봄의제전>의 프로그램으로 김영률 교수의 지휘아래 'The Winds'의 연주가 있었다. 이날 연주에서는 확장된 규모의 앙상블로 23인의 관악주자를 위한 월터 하틀리의 협주곡을 비롯, 국내에서 듣기 힘든 슈만의 4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 등으로 화려한 관악앙상블의 묘미를 보여주었다.

최은식 교수, 일본 NEW YORK YOUNG CONCERTS ARTISTS CELLO MUSIC FESTIVAL 특별 초청
지난해로 95회를 맞은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지난 2010년 11월 11일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Fall in Love'라는 주제를 가진 이 음악회에서 최은식 교수는 협연자로 참여하였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장천아트홀 초청 독주회를 가지며 하이든, 베크, 펜데레츠키, 슈만의 곡들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21일~28일에 최은식 교수는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리는 비바체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일본에서 진행된 NEW YORK YOUNG CONCERT ARTISTS CELLO MUSIC FESTIVAL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특별 초청되었다. 페스티벌의 실내악연주회에 특별게스트로 참여하여 현악사중주, 오중주, 삼중주 등의 구성으로 드보르작, 베토벤, 브람스 등을 연주하였다.

최희연 교수, '금호아트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연주
지난 2002~2005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했던 최희연 교수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곳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11월 25일에는 '베토벤의 밤'이라는 주제로 '월광', '전원', '열정' 등의

명곡을 비롯한 그의 소나타들을, 12월 2일에는 베토벤의 추앙자였던 슈베르트의 '소나타 21번'과 '3개의 피아노곡집'을 들려주었다.

최경환 교수, '연지회 20주년 기념 음악회' 연주
최경환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2일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연지회 2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타악기 연주를 하였다. 이날 연주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이방숙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지회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최경환 교수는 연주자로 특별 초대되어 Bela Bartok의 'Sonata for 2 Pianos and Percussion'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는 최경환 교수가 리더로 있는 4Plus의 17번째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이날은 John Cage, Toru Takemitsu, Michael Burritt의 곡이 연주되었으며, Michael Burritt의 Rounders의 마림바 협연에는 송민정 연주자가 참여하였다.

이경선 교수, 예술의 전당 '토요 콘서트' 및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
이경선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22일 음악휴머니즘의 실현을 위한 단체인 Chamber Ensemble 'M4one'의 단원으로 호암아트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그리고 11월 20일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한 '토요 콘서트'에서는 김대진의 지휘 및 해설과 함께 예술의 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하였다. 이어서 11월 2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동아음악콩쿠르 50회 기념 음악회'에서는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10일에는 예술의 전당이 기획한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The Great 3B Series)의 무대에 협연자로 나섰다. 이날 공연은 임현정 교수가 지휘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첼리스트 송영훈과 함께 브람스의 음악으로 꾸며졌다. 이경선교수와 첼리스트 송영훈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을 협연하였으며 부천필의 연주로 브람스 교향곡 1번이 연주되었다.

주희성 교수, '린나이 팍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협연
지난 2010년 11월 15일 지휘자 최선용이 이끄는 '린나이 팍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서 주희성 교수는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연주하였다. 3,0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연주는 국내 유일의 기업 관악합주단인 린나이팍스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이 클래식을 비롯해 민요, 팝송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수준 높은 연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그리고 올해 8월 3일 Indiana University Summer Music Series로 주희성 피아노 독주회가 Jacobs School of Music Auer Hall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베토벤 소나타 세 곡으로 Op. 31, No. 1, 2, and 3이다.

윤혜리 교수, '광주시립교향악단 제260회 정기공연' 협연
윤혜리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제260회 정기 연주회'에 출연하였다. 이날 지휘는 서현석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맡았고 윤혜리 교수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올해 5월 27일 호암아트홀에서는 윤혜리 교수의 리사이틀이 있었다. 이번 연주는 앵솔루트 플루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소나타를 비롯, 드뷔시 등 섬세

한 표현이 돋보이는 곡 뿐만 아니라 스페셜 게스트들과 함께 선베르크의 캄머 심포니를 연주하였다.

백주영 교수,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협연

백주영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에서 부르흐 협주곡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한 '아나운서 손범수, 진양혜와 함께 하는 토크 & 콘서트 시리즈' 중 백주영 편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지난 11월 14일과 이듬해 2011년 3월에 세종첼로홀에서 있었던 '양상불 오프스 프리뷰 콘서트'에서 양상불 오프스 리더로서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류재준의 피아노 3중주, 슈만의 피아노 4중주를 연주하였다.

Reichert Aviram 교수, 첼리스트 송영훈과 '브람스 소나타' 순회연주

Reichert Aviram 교수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첼리스트 송영훈과 함께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인 현악앙상블인 '세종 솔로이스츠의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첸시과 함께 12월 21, 23, 28일 각각 부산과 춘천, 과천에서 무대에 올랐다.

국악과

황준연 교수, 제2회 '뉴욕산조 페스티벌 & 심포지엄' 참가

황준연 교수는 지난 10월 28일~29일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센터에서 열린 제2회 '뉴욕산조 페스티벌 &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12월 1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서울악회 스무돌 기념 '금합자보(琴合字譜)'의 '향악복원 연주회'에 참여하였다. 올해 4월 7일~8일에는 국립국악원 개원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서양의 고악보와 무보>에서 논문 '시용향악보의 성향반과 잡쳐용'을 발표하였다.

임재원 교수, 제52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 지휘

임재원 교수는 지난 10월 15일 주중한국대사관의 초청

을 받아 북경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11월 11일, 18일 이틀에 걸쳐 열린 제52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에서는 지휘를 하였고, 12월 23일 제77회 청주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에서는 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를 연주하였다. 올해 3월 12일에는 대만 원림연예청의 주최로 대만 Chai Found Orchestra와 협연을 하였고 3월 31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정농악회의 일원으로 영산회상을 연주하였다. 4월 14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김영기의 독창회에서 전곡을 반주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였다.

정대석 교수, '거문고 독주회' 개최

정대석 교수는 지난 11월 7일 전주 소리아트센터에서 '정대석 거문고 독주회'를 열었으며, 12월 7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금합자보(琴合字譜)'의 '향악복원 연주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2월 17일 '유영주 거문고독주회'에서는 정대석교수의 거문고 독주곡 '거문고로 그리는 풍경'이 초연되었다. 올해 5월 6일에는 제81회 남원춘향제의 개막축하공연으로 락음국악단과 수리재를 협연하였고 7월 24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정대석 거문고 독주회 (가진평조희상)을 열었다.

이지영 교수, 프랑스 '세계 문화의 집' 초청 - 피리명인 정재국과 협연

이지영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5일~6일 북촌창우극장 초청으로 '현대음악앙상블 CMEK 연주회'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10월 12일과 19일에는 각각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아시아 금류회 연주회'와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교향악단 창립 2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협연하였다. 12월 4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황병기의 소리여행'에 참여하였고, 지난 11월 26일에는 프랑스 '세계 문화의 집'에 초청받아 피리명인 정재국과 협주를 하였다. 올해 2월 2일~13일에는 하와이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초청으로 전통음악과 작곡과 교수의 작품 세계를 초연하였다. 6월 29일 국립국악원에서는 'Part of Nature' 시연회 연주를 하였고, 7월 6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악연주회에서 Contemporary Music Ensemble KOREA Performs Music by University

of Hawaii Composers 연주에 참여하였다.

김승근 교수, 가사편곡시리즈 '매화를 흐놀다'에서 '처사기' 초연

지난 12월 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77회 정기연주회, 가사편곡시리즈 '매화를 흐놀다'에서 김승근 교수의 중주곡 '처사기'가 초연되었다. 가사는 조선시대의 가사문학 학과 문인들이 즐겨 읽던 중국의 고전 명문장을 가곡, 시조와 비슷한 발성으로 노래하는 음악으로 이번 공연은 가사의 전통적 형식과 현대적 해석이 어우러지는 자리였다. 그리고 올해 5월 3일 부산국악원 소극장에서 열린 'KMP 전통과 현대' 공연에서 김승근 교수는 공연의 기획 및 작곡에 참여하였다.

양경숙 교수, '해금독주회' 개최

양경숙 교수는 지난 10월 14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KBS국악관현악단 제191회 정기연주회'에서 KBS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였고, 11월 23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일초 영산회상을 주제로 한 '양경숙 해금독주회'를 열었다. 올해 1월 30일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교류 음악회'에서 연주하였고, 4월 1일에는 서울 시립 국악관현악단과 세종 M씨어터에서 협연을 하였으며, 5월 4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힐러리 핀첨성 교수, '동편제 학술세미나' 참가

힐러리 핀첨성 교수는 지난 10월 9일 구례에서 열린 '구례동편제 소리축제, 동편제 학술세미나'에서 '동편제 명창 송만갑의 예술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미국 L.A.에서 열린 'Society for Ethnomusicology Annual Meeting in Los Angeles'에서 "Project Korea: Kugak Teams and the Sound of a New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올해 3월 31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ternational Council of Asia Scholars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하여 논문 'The Rainbow Chorus and Korea's Multiculturalism'을 발표하였다.

오용록 교수, 지난 3월 21일 급성췌장염으로 별세



지난 11년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 위원, 민족음악연구 등 한국전통음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국악과 오용록 교수가 급성췌장염으로 별세하였다.

그는 1982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작곡전공을 졸업한 후, 1985년 동대학원 국악이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6년 일산 김명환 선생계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교본을 이수 받은 바 있어, 국악실기, 국악작곡, 국악이론에 능통하여 국악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985년 8월부터 2년간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조교를 마친 후, 같은 해 서울대학교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3년간 기금전임강사를 거쳐 1999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조교수에 임용되었다. 이후 꾸준한 교육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2006년 10월 1일 부교수로 승진하게 되었고 2008년부터 동양음악연구소장을, 2009년부터는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주임을, 2010년부터는 국악과 학과장을 겸무하면서 본분에 최선을 다 하였다.

바쁜 교내 직책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국악교육에 앞장서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잘못된 국악이론을 바로 잡기도 하고, 후학양성에도 기여하고자 직접 음반제작에도 참여하였다. 주요연구실적으로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1984)>, <듣고 배우는, 국민학교 교과서 전래동요와 민요(1993)>, <전통음악 학습지도용 녹음자료(1998)> 등이 있다.

그는 우리 국악계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한국전통음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찾아가며 잊혀져 가는 문화재산을 보존하고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매년 후학들과 동행하여 살아있는 전통음악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선한 자극과 함께 보다 폭 넓은 경험을 쌓아 연구의 의지를 크게 고취시켰다. 대표 연구 논문으로는 '보허자 형성고(1984)', '한국기존음악 형성론(1995)', '생존투쟁의 노래, 민요(2000)'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오용록 교수는 한국농악보존협회 이사, 한국국악학회 이사, 문화재 전문위원,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오용록 교수를 떠나보내는 제자 및 동료 교수와 지인들은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 그의 업적과 공적은 국악계에 길이 빛날 것이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농협 079-17-065663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신한은행 100-023-845777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문의:** 음악대학 학장실 02-880-7900 /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880-9320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02-880-5026, 871-8146 /
fax, 872-4149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번지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28호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우151-818)

‘프렌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학생입장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음악회에 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중들도 주어진 음악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음악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뜻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Friends)’ 라는 회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는 문화예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새로이 마련한 회원 제도입니다. 회원에게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기획하는 음악회의 관람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의 회비는 음악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을 돕고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음악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의 기획과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 **회원에게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음악회의 초대권 2매 및 음악회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서울음대 소식지 우송
 - 프렌즈 회원 카드 배송
 - **회 비**
 - 1년 회비: 10만원
 - 농협 079-01-469806(예금주: 서울대음악대학)
- ※ 가입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880-932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쿠르 입상 소식

<2010-2>

- | **기악과** |
 - [피아노]
 - 제1회 하노이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김경훈(08), 2위 정다현(08)
 -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피아노 오선아(석사)
 - 이태리 Luciano Gante Competition 3위 & 특별상 피아노 양윤희(03)
 - 베토벤 콩쿠르 대상 이시현(11), 2위 김소영(10), 3위 한지윤(09)
 - [관악]
 - 동아음악 콩쿠르 첼로 1위 마유경(10), 바이올린 2위 하유나(10), 4위 이한나(07)
트럼본 1위 전태일(08), 2위 주인혜(10), 3위 안다혜(05)
 - [현악]
 - 동아음악 콩쿠르 비올라 3위 곽다경(08), 콘트라베이스 2위 장한별(09),
바이올린 4위 이한나(07)
- | **국악과** |
 - 2010년도 세종·매경 음악 콩쿠르(전통음악) 일반부 대상 박명규(10),
일반부 해금1위 정겨운(석사11), 일반부 해금2위 황보영(09)
 - 제30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종합 대상 김대곤(07), 현악 1위 양수연(석사)

<2011-1>

- | **성악과** |
 - 2011 음악춘추콩쿠르 성악부문 1위 이혜지(08)
 - 2011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남자부문 1위 김승직(09), 남자부문 3위 석정엽(08)
 - 2011 난파음악콩쿠르 대상 석정엽(08)
 - 2011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여자부문 2위 손나래(09)
 - 2011 전국 국제 학생 콩쿠르 여자부문 이혜지 1위(08), 남자부문 김정훈 1위(09)

- | **작곡과** |
 - 제34회 창작회 작곡 콩쿨 실내악부문 우수상 박지민(10)
 - 제43회 서울창작음악제 실내악부문 입선 정연호(08)
- | **기악과** |
 - [피아노]
 - 프랑스 Leopold Bellan 국제콩쿠르 피아노 1위 오선아(석사)
 -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 3위 서필원(석사)
 - 쇼팽콩쿠르 피아노 3위 이시현(10)
 - 2011 미국 두랑고 영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콩쿠르 피아노 1위 인소형(10)
 - [관악]
 - 제28회 부산음악 콩쿠르 트롬본 부산시장상 주인혜(10), 오보에 부산시장상 이광일(11),
바순 부산MBC사장상 백승훈(11)
 - [현악]
 - 중앙음악콩쿠르 바이올린 1위 곽다경(08), 바이올린 3위 신정은(08), 첼로 1위 안예진(10)
 - Andrea Postachini 콩쿠르 바이올린 1위 변지우(11)
- | **국악과** |
 - 제27회 동아국악 콩쿠르 대금 부문 금상 박명규(10), 정가 부문 은상 김희영(09),
작곡 부문 금상 김보현(박사11), 가야금 부문 금상 김지은(09), 가야금 부문 은상 공유림(07),
거문고 부문 금상 이선화(석사10), 거문고 부문 동상 박다울(11), 판소리 부문 금상 장서윤(10)
 -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기악부 차하 안건용(08)
 - 제21회 전국 김해가야금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진나정(박사), 대학부 최우수상 김도연(10)
 - 제37회 전국 난계 국악경연대회 대학부 대상 정수빈(08)
 - 제38회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일반부 대상 최 건(06)
 - 제20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심새미(박사), 일반부 장려상 이지애(석사),
대학부 장려상 김지은(09)
 - 제31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해금부문 동상 양희진(석사), 정가부문 동상 안정애(08),
가야금부문 금상 김도연(10), 가야금부문 은상 황희경(10), 거문고부문 동상 박다울(11)